서울시 프로스포츠 환경 개선

정책 제안서

선수 복지 및 친환경 경기장 운영 고도화를 위한 4대 정책 대안

경희대학교 [세계와시민] 팀 킥오프

목 차

대안 1. 혹서기 홈경기 안전 보호 조례 제정
대안 2. 관내 선수 전용 첨단 재활 · 회복 센터 구축
대안 3. 비공개 멘탈코칭 및 은퇴 진로 통합 지원
대안 4. 친환경 경기장 운영 고도화 계획

대안 1. 선수 건강권 보장을 위한 「혹서기 홈경기 안전 보호 조례」 제정

가. 법적 근거

나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프로스포츠 선수는 살인적인 경기 일정 속에서 한여름 폭염에도 경기를 강행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.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혹서기에도 주간 경기가 반복되면서 열사병 · 탈수 · 근육 손상 등 온열 질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며, 이는 선수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.

경기 일정 결정권이 리그 본부에 있어 구단 단독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, 경기장을 소유 ·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사용 조건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다. 추진 내용

① 혹서기 홈경기 일정 권고제 도입

시가 소유 · 관리하고 프로구단이 대관하여 사용하는 주경기장의 시설 사용 협약에 다음 조항을 명시합니다.

② 벤치 구역 내 쿨링 인프라 지원

시 예산 및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홈경기장 벤치 구역에 다음 설비를 지원하고, 경기 중 쿨링 브레이크 타임의 이행 여부를 공식 감독합니다.

라. 기대 효과

선수 안전 보장: 폭염 노출 최소화를 통한 온열 질환 예방 및 경기력 보호

지자체 책임 행정 실현: 시설 사용 조건 규율을 통해 리그 본부에 대한 간접적 안전 기준 확립

관중 및 경기 품질 향상: 야간 경기 확대로 관람 환경 개선 및 흥행 효과 기대

대안 2.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한 「관내 선수 전용 첨단 재활 · 회복 센터」 구축

가. 법적 근거

나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현행 법령상 프로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보험)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에 따라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한 재활 비용은 구단 또는 선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합니다.

특히 저연봉 선수 및 대학 선수의 경우 고가의 재활 · 회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, 부상 이후 경력 단절 및 기량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. 공공 체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선수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다. 추진 내용

① 시립 체육시설 내 유휴 공간 리모델링

서울시 종합운동장 또는 시립 체육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「서울시 스포츠인 전문 재활 · 회복 메디컬룸」을 구축합니다. 기존 시설의 일부 공간을 재활용함으로써 신규 부지 확보 없이 초기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② 첨단 회복 장비 도입 및 이용권 지급

시 예산으로 부상 재활 및 피로 회복에 효과가 검증된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, 관내 연고 프로선수 및 저연봉 · 대학 선수를 대상으로 「공공 재활센터 무료 이용권」을 복지 차원에서 지급합니다.

라. 운영 방안 및 지속가능성

단계적 개방을 통해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고,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의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.

마. 기대 효과

선수 복지 사각지대 해소: 산재보험 미적용 프로선수에 대한 공공 안전망 제공

지역 스포츠 경쟁력 강화: 관내 연고팀 및 대학 선수의 부상 회복력 향상으로 경기력 제고

공공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: 유휴 공간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통한 시설 효율성 극대화

재정 자립형 운영 모델: 단계적 유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 확보

대안 3. 시 종합 케어 시스템 연계 「비공개 멘탈코칭 및 은퇴 진로 통합 지원」

가. 법적 근거

나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프로선수는 경기력에 대한 극심한 압박, SNS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고통, 30대 초반 이른 은퇴 이후 사회 재진입의 어려움이라는 복합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구단 내 정신건강 지원 체계는 미비하고,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선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.

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신건강복지 및 일자리 인프라를 스포츠 영역과 연계함으로써, 선수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공개 · 독립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다. 추진 내용

①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익명 상담 프로그램 운영

구단 내부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정신적 고통을 숨기는 선수들을 위해, 시립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프로 · 대학 선수 대상 「1:1 찾아가는 완전 익명 보장 멘탈 케어 프로그램」을 운영합니다. 구단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 채널로 운영하여 선수가 불이익 없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

②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진로 전환 컨설팅 신설

선수의 경력 중단 및 은퇴에 대비하여 시 일자리센터 및 관내 대학과 연계한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.

라. 운영 방안

마. 기대 효과

선수 정신건강 보호: 익명성 보장을 통한 심리 지원 접근성 제고 및 조기 개입 가능

경력 전환 안전망 마련: 은퇴 후 사회 연착륙을 위한 체계적 진로 지원으로 경력 단절 예방

지역 스포츠 인재 선순환: 은퇴 선수의 지역 체육 생태계 내 재진입 촉진

공공 복지 자원의 스포츠 분야 확장 적용: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

대안 4. 서울월드컵경기장 현황 기반 「친환경 경기장 운영 고도화 계획」

가. 법적 근거

나. 현황 및 문제 진단

서울월드컵경기장은 FC서울 홈경기 기준 경기당 약 33,000명의 관중이 방문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 체육시설입니다. 현장 인터뷰 결과, 친환경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.

다. 추진 내용

① 탄소 측정 · 관리 기준 체계 수립

현재 경기장 차원의 탄소 배출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. 서울시설공단 주관으로 경기장 운영 단계별 탄소 배출 기준을 수립하고, 관중 이동 · 시설 운영 · 폐기물 처리 등 항목별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집계 · 공개하는 「경기장 탄소 현황 보고서」 연 1회 발간을 의무화합니다.

② 다회용기 제도 전면 확대 및 운영 고도화

2025년 FC서울 홈경기 대상 시범 도입한 다회용기 제도를 경기장 내 모든 행사로 확대합니다.

다만 다회용기 제작 · 운반 ·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면적 탄소 비용을 함께 산정하여, 실질적인 순감축 효과를 검증하는 라이프사이클 평가(LCA) 도입을 병행 추진합니다.

③ 관중 대중교통 이용 촉진 인센티브 제도화

현재 경기 전 문자 안내 및 서울교통공사와의 배차 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중교통 이용 권장을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로 격상합니다.

④ 소음 피해 주민 대상 기존 혜택 홍보 강화

현행 조례상 경기장 인근 주민에게 주차료 50% 감면 혜택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나, 홍보 부재로 대다수 주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별도 예산 없이 플래카드, 경기장 전광판, 구청 공지 채널을 통한 적극 홍보만으로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라. 단계별 추진 로드맵

마. 기대 효과

탄소 감축 가시화: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 감축 성과를 수치로 입증 가능

폐기물 대폭 절감: 다회용기 전면 확대 시 연간 수십 톤 규모의 일회용 폐기물 감축

관중 행동 변화 유도: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자가 차량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전환 촉진

지역 주민 상생: 기존 혜택 홍보 강화로 추가 예산 없이 민원 감소 및 수용성 제고

서울시 친환경 경기장 표준 모델 제시: 향후 타 공공 체육시설 친환경 운영의 선도 사례로 활용